캄보디아에 의료물품 전하며 '世界一花' 실천

〈세계일화〉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3. 글로벌 의료물품 지원 현장

4월 19일, 25억원 상당 물품 선적
지난해 이어 국제구호사업 나서
6월 중순, 시엡립주서 전달키로
"생명 살리는 데 국경은 없다"

안산=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가 4월 19일 안산에서 '캄보디아 지원물품 선적식'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의료 인프라 미흡 국가 지원에 나섰다.



선적식에 앞서 일면 스님은 물류창고를 둘러보며 해외에 지원되는 다양한 물품을 살폈다.



일면 스님은 선적식에서 의료물품들이 잘 전달돼 캄보디아 취약계층에게 힘이되길 기대했다.



한마음선원은 EM친환경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부처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의료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4월 19일 안산에 위치한 (사)글로벌생명나눔 제1물류창고에서 '캄보디아 지원물품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된 의료물품은 25억원 상당으로, 캄보디아 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의료물품과 함께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한 EM친환경 생활용품도 동시에 전달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글로벌생명나눔과 협업,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하며 국제구호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활동 영역을 넓힌 것.

캄보디아 의료물품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본 의료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로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캄보디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염원하며 (사)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의료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2018년 설립된 (사)글로벌생명나눔은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다. 의료물품 뿐 아니라 교육자재와 학용품 등의 교육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미래 역량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4월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157억원 상당의 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시리아, 미얀마 등 2018년부터 18개국에 43차례에 걸쳐 전달한 의료물품이 6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선적식에서 일면 스님은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난치병 환아 돕기 등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의 어려운 이웃에 부처님 손길을 내밀겠다는 서원을 담아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의료물품들이 잘 전달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발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데 꾸준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적식에 동참한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이웃을 위해 선적식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김정남 (사)글로벌생명나눔 대표는 "어려운 이웃국가를 위해 2018년 첫발을 내디딘 일이 이제는 70개 제약사와 의료물품 회사가 함께하는 규모가 됐다"면서 "국적도 종교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없는 의료물품이 유통상의 이유로 한 해에 4조원 이상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물품은 소각해야하는 것이 많기에 환경에도 좋지 않은 실정"이면서 "이웃국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엡립주에 방문해 이날 선적한 의료물품을 직접 인수받아 양코르톰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법인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도 현지에 방문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병행,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문화적 연대와 상호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생명나눔은 앞으로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적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정현숙 마하무용단장,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장, 이광은 홍보대사, 정용수 감사, 성명용 한국집 대표, 이광권 전 한국대학야구연맹 사무처장 등이 동참했다.

불기2569년 봉축법어

"참나 찾는 정진으로 자비 등불 밝하길"

두산 일면 대종사

신록이 생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께서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려고 사바세계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중생의 삼독심과 오욕을 끊어 평화와 평등의 조화로운 세계를 여는 길을 일러주셨고, 온갖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안락하게 사는 법을 밝혀주셨으니 성중성(聖中聖)이요, 불멸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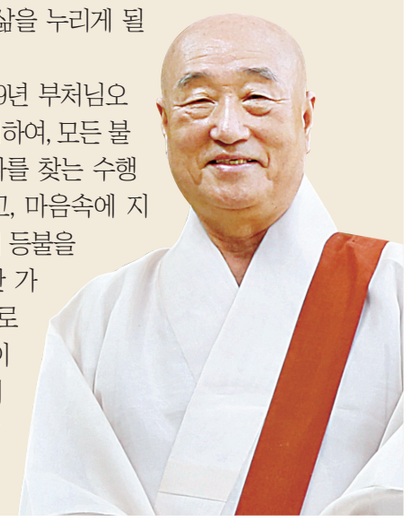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은 판단(癡)의 삼독심(三毒心)을 끊고,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은 탐진치(貪瞋癡)가 그 원인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성냄으로 인하여 투쟁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니, 이로 인해 괴로운 과보는 반복되며 세상은 고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반야의 밝은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인개개(人人箇箇)가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참나를 찾는 데 게으름이 없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나를 찾지 않으면 마음의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복은 짓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면서 바르게 참선을 해 나가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봄눈 녹듯 사라져 다 같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이 참나를 찾는 수행에 정진하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가정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